환일소식

은 행 나 무

Woon-hwa Educational Foundation

제 14 호

• 발행인 : 김 은 미
• 발행처 : 환일고등학교
• 주 소 : 서울시 중구 환일길 47

http://hwanil.hs.kr

2017년 7월 19일 수요일

제 3회 합창대회

대상 / 2학년 6반

금상 / 2학년 4반

금상 / 1학년 8반

중간고사가 끝난 5월 26일 제3회 합창대회가 운동장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학급 친구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합창 연습을 하고 박자와 음정을 맞춰가며 노력했던 시간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가장 감명 깊었던 무대는 대상을 받은 2학년 6반의 '레미제라블 메들리' 다. 분위기가 합창과도 잘 어울리고 역할극으로 소소한 재미와 스토리가 있어서 더욱 몰입하기 좋았다. 그리고, 금상은 노래실력뿐만 아니라 퍼포먼스도 좋았던 2학년 4반의 '정주나요, 어머님이 누구니' 와 1학년 8반의 '아름다운 나라' 가 받았다. 특히 1학년 8반은 담임 선생님께서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태극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도 했다고 한다.

모든 반이 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모두 열심히 준비했던 과정에 모든 환일인들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싶다. 이번 합창대회를 하면서 학급 친구들과의 호흡과 단합력이 좋아졌고 합창대회 동안 함께했던 친구들과의 추억은 사라지지 않고 떠올릴 때마다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번 합창대회를 하면서 느꼈던 우애와 협력이 다른 모습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길 바라고 다음에 있을 성가경연대회에서도 더욱 단합된 모습을 기대해 본다.

1학년 김준수 기자

1학기 정부회장 임명식

지난 3월 13일 본교 강당에서는 2017학년도 정부회장 임명식이 진행되었다. 이날 임명식에서는 각 학년의 정부회장들이 모여 한 학기동안 학급을 이끌어 갈 자격을 증명하는 배지를 수여 받았다. 이날 임명식에서는 김은미 교장선생님께서 직접 오셔서 학급을 대표하여 담임 선생님을 도와 봉사하며 솔선수범할 것을 정부회장들에게 당부하고 축하의 말씀을 전해 주셨다.

3월 초, 같은 반 학생들끼리도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시기에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자신들의 반을 대표하고 반의 의견을 대변해줄 학급 정부회장 선거를 실시하였다. 1학기의 정부회장 선거는 일찍 치러지는 만큼 후보가 적고 가장 공정하다. 오늘은 이렇게 뽑힌 학급의 정부회장들의 임명식이 있는 날이다. 학생들이 자신들 학급의 새로운 정부회장 친구들에게 기대와 신뢰가 있어서인지, 임명장을 수여할 때 해당 반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온다. 하지만 이렇게 임명된 정부회장들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한 학기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다. 정부회장으로서 가장 힘든 직무중 하나는, 학기 초의 이러한 신임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다. 이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신뢰를 등에 지고 일거수 일투족을 책임감과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여러 시련을 만나더라도 그들만의 방식으로 잘 해결해 나갈 것이라 믿으며 환일의 새로운 정부회장들의 출범을 응원한다.

1학년 서한민 기자

[주요내용]

1면. 제 3회 합창대회
2면. 부활절 촛불예배
3면. 스승의 날 행사
4면. 체육대회, 소규모 테마여행
5면. 대학탐방, 전공설명회
6면. 등행훈련, 사격부소식
7–8면. 명사특강
9면. 합창대회 소감문
10면. 대학탐방, 체육대회 소감문
11면. 소규모 테마여행 소감문
12면. 교내외 수상, 교사 수상, 2학기 주요행사

부활절 촛불예배

지난 2017년 부활절 촛불 예배가 4월 17일에 환일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드려졌습니다.

기독교 학교인 우리 학교는 전통적으로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부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촛불예배를 실시해왔다. 예배 형식에 따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여 부활찬송을 하고, 감사기도를 드렸다. 박종관 목사님께서는 ‘그리스도 부활의 증거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학생들도 모두 잘못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김은미 교장님께서는 부활절 축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학생들과 교사 모두는 촛불에 불을 붙여 경건한 마음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깊이 생각하며 묵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지 하나의 일회적인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모든 학생들에게 전파되는 아름다운 기독교 학교로 우뚝 서기를 바란다.

1학년 김건희 기자

기드온 성경 전달 예배

지난 3월 20일 기드온 협회에서 소중한 성경책을 신입생들에게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가 있었다. 학교의 설립 목적인 기독교 이념에 따라 1주일에 1번씩 예배 시간에 유용하게 사용할 하나님 말씀을 전해 받는 행사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기드온 협회는 하나님 말씀을 청소년, 군부대, 소방서, 병원 등에 무료로 배부하고 있으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한 권의 성경이 한 명의 영혼을, 또 그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으며 함께 기도하는 단체이다. 이 기드온 협회의 임원분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는 예수님을 말씀을 실천하였다. 전달받은 성경 말씀은 종교 수업시간과 예배 시간에 읽으며 학생들에게 신앙심을 자라게 할 것이다.

1학년 김민석 기자

영재학급 입학식

우리 학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영재학급 운영학교(2010. 2. 19)로 지정되어 있다. 그래서, 지난 4월 14일에는 영재학급 입학식이 있었다.

20여분의 학부모님들도 참석하셔서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의 축하 속에서 진행된 영재학급 입학식은 과학 분야(명흥식 선생님), 수학 분야(배수화 선생님), 융합(발명・과학) 분야(최선영 선생님) 등 총 60명의 영재학급 학생들이 모여 1년 간의 영재학급의 취지와 활동계획 등에 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2학년 학생들이 작년 영재학급에서 배운 내용들을 1학년 후배들이 보는 앞에서 멋지게 발표를 함으로 후배들에게 공부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지적 동기를 부여하였다. 특히 김은미 교장선생님께서는 영재학급 학생들에게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셨다. 영재학급 학생들이 선배들의 발표들을 보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1학년 김충훈 기자

성경퀴즈대회

제 38회 성경퀴즈대회가 지난 7월 7일(금)에 실시되었다. 우리 학교의 전통을 보여주는 이 대회는 무려 38년 전에 시작되었을 정도로 기독교 학교로서의 자부심을 보여주는 대회 중 하나이다. 고등학교 1학년 단체전은 마태복음으로, 2학년은 누가복음으로, 개인전 왕중왕 전은 창세기 문제로 진행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응원 또한 열정적이었다. 자기 학급을 응원하는 도구들을 준비해 와서 열띤 응원을 펼치며 모두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가 된 뜻 깊은 행사였다.

1학년 김건희 기자

2017학년도 스승의 날 행사

지난 5월 15일 학교 운동장에서 화창한 날씨 속에서 스승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다.

스승의 날은 한글을 창제하여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던 민족의 스승인 세종대왕의 탄신일을 기념하여 스승의 날이 제정되었다고 한다.

스승의 날 행사는 김은미 교장님의 훈화 말씀으로 시작되었다. 선생님들께서는 스승으로서의 사명감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시간으로, 학생들에게는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으로 의미 있는 행사였다.

미리 준비한 꽃을 선생님들께 달아드리며 '스승의 은혜'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 사제지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평소에도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잘 표현하지 못했었지만 이 날 만큼은 마음껏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앞으로도 정직하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의 은혜에 감사하는 학교생활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하루였다.

특히 이 날은 최원호 선생님(부총리겸 교육부장관상), 오혜경 선생님(서울시 교육감상), 최선영 선생님(서울시 과학발명품 경진대회 지도교원상), 명흥식 선생님(중부교육지원청장상) 등의 수상도 함께 있었다.

1학년 이후승 기자

학교로 찾아가는 음악회

지난 4월 3일 월요일 '학생로 찾아가는 음악회'가 우리 학교 대강당에서 열렸다.

많은 학생들의 참여하에 이 음악회는 대강당에서 행사가 열리게 되었다. 처음에는 국악이라고 해서 지루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우리 음악은 월요일 학생들의 나른함을 깨우는 국악 가락이 펼쳐졌다.

우리의 음악인 장구와 춤, 그리고 25현 가야금 등으로 이루어진 국악에서는 월요일에 나른함을 깨움과 동시에 낯설게 느꼈던 우리가락의 아름다움을 배우고, 즐기는 시간이 되었다.

서양음악과 가요, 힙합 등에 익숙한 이러한 국악을 듣고서는 학생들은 우리 국악은 선율도 없고, 지루하다는 선입견이 있었지만 막상 들어보니 선율도 예쁘고 쉽게 접할 수가 없던 우리 국악을 학교에서 보니 익숙해져 다시 한 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기도 한다.

음악회에서 국악 연주자들과 학생들의 소통을 통하여 옛 조상들의 문화예술을 배우고 학업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려버리는 힐링의 시간이 되었다.

1학년 윤준혁 기자

〈독서캠프〉

우화의 패러디, "창작에 익숙해지길 바라며.."

지난 5월 19일, 환일 독서캠프가 돌아왔다. 이번 독서캠프는 독특한 주제를 갖고 있다. 주제는 바로 패러디. 그것도, 원작 '우화'를 변형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보는 패러디 작업이다. 우화란 인격화한 동식물이나 기타 사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들의 행동 속에 풍자와 교훈의 뜻을 나타내는 이야기를 뜻한다.

담당 선생님인 박현아 선생님께 특별히 우화의 패러디를 주제로 선택한 이유가 있냐고 질문을 하였다. 예상보다 그 이유는 심오했다. 그 이유는 독서캠프의 의의와도 깊은 관계에 있다. "현대의 아이들은 보는 것에, 미디어에만 익숙해져있다. 그래서 독서활동을 멀리하게 되고 창작활동 또한 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평소 때 읽는 글은 SNS와 같은 짧은 글로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격식을 갖춘 긴 글을 꺼려하게 된다." 박현아 선생님께 독서캠프의 의의에 대한 질문을 하자 먼저 우리나라 학생들의 독서 실태에 대해 먼저 답해주셨고, 이어서 독서캠프의 의의를 설명해주셨다.

모든 활동이 끝나고 아이들끼리 소감문을 써서 발표하였다. 비록 겉으로 보면 그저 웃고 떠들며 패러디를 만드는 단순한 활동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이 느낀 바는 전혀 달랐다. 앞으로도 이렇게 단순한 수업이 아닌 다양한 주제들을 이용한 체험 학습으로 학생들의 독서에 대한 지도와 사고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독서캠프 파이팅!

1학년 서한민 기자

고2 소규모 테마여행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던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16일까지 총 4일 동안 환일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제주도로 소규모 테마 여행을 다녀왔다.

공부의 압박감과 일상의 피로함을 던져버리고 새롭고 행복한 기억들을 남기고자 벅찬 설렘을 안고 낭만 가득한 제주로 향하였다.

여행 기간 내내 아름답게 하늘을 비춰준 태양과 우리에게 이런 날들을 허락해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를 안전히 이끌어 주신 선생님과 많은 분들께 감사 드린다.

넥슨 게임과 관계된 줄 알았던 넥슨 컴퓨터 박물관은 컴퓨터의 역사를 알 수 있었고, 서커스 구경도 했으며, 특히 올 해는 한라산 정상에 도전하는 한라산 드림팀을 운영하여 너무 멋져 보였다. 그리고, 승마 체험도 기억에 남는다.

소규모 테마 여행은 상당히 즐거웠다. 제주도만의 절경을 엿볼 수 있었고, 여러 체험을 했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활동을 친구들과 같이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단체 생활의 즐거움을 잔뜩 만끽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 되었다. 또한 동시에,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우정 또한 더욱 깊어졌을 것이다.

2학년 방성한 기자

고3 체육대회

올 해는 학교 운동장 공사로 인해 학년별로 체육대회를 실시하였다.

지난 5월 12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환일고등학교 운동장에서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체육대회가 시작되었다. 학업으로 지친 학생들에게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하며 재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올 해는 운동장 공사로 인해 고3들만의 체육대회가 시작 되었다. 고1. 2학년 때 했던 체육대회 때 보다 참가하는 종목이 많아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겼고, 전교생이 참가해서 복잡하게 진행되었던 지난 체육대회와는 달리 고3만 즐기는 체육대회라서 좁아진 운동장에도 불구하고 복잡하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우리들은 100M달리기를 시작으로 반별 대항전으로 족구, 승부차기, 자유투를 하며 오전시간을 보냈고, 맛있는 점심밥을 먹고 난 뒤에는 각 종목별 결승전을 진행하고 족구 우승반과 선생님들이 겨루는 족구시합을 본 후 반별 계주와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계주를 마지막으로 체육대회는 끝이 났다.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과 서로 응원하며 기쁨을 나눠 한층 더 가까워 진 거 같고 중간고사를 보며 쌓였던 학업 스트레스가 한 순간에 사라진 즐거웠던 날이었다..

3학년 하현수 기자

고1 체육대회

중간고사를 마치고 지난 6월 16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환일고등학교 운동장에서는 즐거운 체육대회가 막을 열었다. 교감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모든 학생들이 운동장에 나와 부상방지를 위한 준비 운동을 했다. 그리고, 드디어 고등학교 1학년만의 체육대회가 시작되었다.

3월에 입학해서 중학교와 달라진 학교 환경과 공부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었던 시간들에서 체육대회는 가뭄 속 단비와 같이 즐거운 축제의 분위기였다. 더군다나 1학년 만의 여유있으면서도 참여할 수 있는 경기가 많아 좋았다. 100M 달리기, 800M 릴레이, 스포츠 한마당(족구, 승부차기, 자유투),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사 릴레이 등 다양한 종목들이 진행되었다.

학교 다목적관 공사로 인해 좁은 운동장에서 진행되었지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만의 체육대회여서 복잡함을 느끼진 못했고, 공사가 다 완료되어 다시 넓어진 운동장에서 뛰어 놀 수 있는 2학기를 기대해본다.

1학년 이기정 기자

대학탐방

지난 5월 24일 각자 원하는 대학에 탐방하는 대학탐방의 날 행사를 진행하였다.

평소 대학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직접 자신들이 관심 있는 대학에 가서 체험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중간고사로 정신 없었던 지난 시간을 뒤로 한 채 날씨는 조금 더웠지만 학생들에게 공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자신의 진로를 설정할 수 있는 이 행사는 정말 중요한 행사라고 볼 수 있따. 실제로 이 대학탐방을 통해 대학에 꼭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좋은 동기 부여가 되었다. 또한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와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도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이번 대학 탐방을 다녀오면서 대학의 시스템과 입시에 대한 정보 또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 지금 조금 참으면 미래에 나도 대학생이 되어 웃을 수 있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다.

2학년 방성한 기자

전공설명회

지난 5월 24일, 3월에 입학하고 중학교와는 전혀 새로운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하느라 힘들었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뜻 깊은 전공 설명회 행사가 열렸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직 문과, 이과에 대한 진로도 정하지 못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이번 행사는 큰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우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잘하는 분야,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 3가지 전공을 각자 선정하여 그 전공에 대해 외부에서 대학생들이 와서 그 전공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모두 자기가 선택한 전공이기에 입시와 관련된 정보, 공부하는 내용, 취업 등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대학에 진학하여서도 많은 학생들이 전공을 바꾸어 전과를 한다고 들었다. 그 이유는 적성에 맞지 않아서라고 한다. 그래서, 각 대학에서 전공을 설명하는 동아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행사였다.

전공 설명을 들으며,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일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는 좋은 시간이었다.

1학년 강원준 기자

대입설명회

지난 4월 21일과 6월 23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18년 대학입시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점점 복잡해지는 대학입시에 대외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구체적인 대학입시에 대해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을 드렸다. 최근에는 부모님들께서도 대학입시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모든 대학입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학 입시는 이제 정보 전쟁이라고도 불려질 만큼 정보를 많이 알면 큰 도움이 된다.

학부모님들은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 위한 생활기록부 관리부터 학업 진로 관리까지 전문가의 입시 전략과 노하우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올 해에도 고3 학생들이 모두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를 기도한다.

3학년 이선찬 기자

이은결 THE ILLUSION을 다녀와서

중구청 문화체험 지원금으로 환일고등학교 학생들은 지난 3월 28일 화요일 저녁 고대하던 이은결의 THE ILLUSION을 관람 하였다.

이은결은 TV에서나 보던 슈퍼스타 였는데 실제로 그의 공연을 볼 수 있게 되어 감회가 남달랐다. 8시쯤 이은결의 오프닝이 시작되어 자신의 옛이야기를 시작하여 장난감을 실제 헬기로 만드는 엄청난 마술을 보여 주었다. 그것을 보고 내 눈을 의심할 정도로 놀라웠다. 그리고 미녀와의 마술도 정말 지매 있었다. 우리가 흔히 보던 미녀의 몸을 자르는 마술이었지만 그것을 실제로 보니 TV로 보던 것과는 많이 달랐다.

아이와 엄마가 함께 참여하여 함께하는 마술은 엄마의 실수 덕분에 우리 관객들은 정말 재미있었다. 이은결 마술사는 놀랄 만도 한데 당황하지 않고 능숙히 마술을 풀어나갔다. 그 마술은 아이에게 평생 남을 기억이었을 것이다.

마지막 우리는 이은결 자신의 깨달음을 마술로 나타낸 것이다. 그것은 정말 감동적이었다 . 자신의 상상을 실제로 만들기 위해 21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그의 이야기에서 더 실감나고 재미있었다.

마지막의 그의 나래이션이 정말 인상 깊었다. '나의 꿈을 비난하던 사람도 있었다. 눈속임에 불과한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이 눈속임은 우리를 잠시 험난한 현실의 탈출구가 되어준다. 그래서 나는 나의 직업을 사랑한다.' 였다 꿈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이 정말 멋있었고 정말 멋있는 '어른' 같았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2학년 이건호 기자

고1 등행훈련

지난 5월 12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도시를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북한산 등행 훈련을 하였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과 함께 산에 오르기 시작했다. 일기예보에서는 비가 온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비도 오지 않았고 하늘은 맑았다. 날씨가 더워서 산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땀이 흐르고 다리는 아파왔다. 친구들 모두 땀을 뻘뻘 흘렸지만, 친구들과 함께여서인지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다. 자연과 함께하며 우리는 힘들어 하는 친구에게는 노래를 들려주고, 덥고 목마르다는 친구에게는 물을 한 모금씩 주고, 땅에서 멀어지

이번 등행훈련을 통해, 우리가 잊고 있었던 작고 소소한 감동이나 아름다움, 그리고 자연의 소중함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었다. 또한 친구들과 더욱 더 돈독한 우정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자연을 통해 힐링하는 좋은 시간이었다.

1학년 김민석 기자

고2 등행훈련

지난 5월 24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관악산으로 향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따로 운동할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이번 등행훈련을 통해 몸도 가벼워지고 정신도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처음에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약간 짜증이 나기도 했지만, 산에 올라갈수록 공기가 맑아져서 기분 또한 좋아졌다.

울창한 나무들 덕분에 공기는 맑고 쾌적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녔었는데, 오늘만큼은 안 써도 될 것 같았다. 이번 등행훈련을 통해 공부에 대한 압박과 따분하고 지루했던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빽빽한 도시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를 걱정하고, 공부를 걱정하며 학원과 야자로 찌들어 사는 우리에게는 이번 등행 훈련이 마치 오아시스와 같은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2학년 방성한 기자

사격부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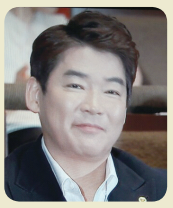
전라남도 나주종합사격장에서 진행된 제47회 봉황대기 전국사격대회에 참가한 본교 사격부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올해 첫 대회부터 사격강자다운 면모를 과시하였다. 특히 김태욱 선수는 25m 속사권총에서 개인 1위를 차지하였다.

대구광역시 대구종합사격장에서 열린 제 33회 대한사격연맹 회장기 전국사격대회에서 본교 사격부 3학년 학생선수들이 참가하여 25미터 속사권총에서 김태욱, 이건혁, 박성우, 강종오 등의 학생들이 단체 1위를 차지하였다.

곧이어 열리는 2017 한화회장배 전국사격대회에서도 선전을 기원한다.

1학년 이기정 기자

2017 1학기 명사 특강

4/5	5/15	5/31	6/23
법무부의 주요정책	점프하는 인생	로봇기술과 미래	국제관계로 본 6.25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희석 교수	오준호 교수	양종수 교수

〈이창재 선배님 명사 특강〉

법의 중요성

지난 4월 5일에 올해 첫 명사특강에서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선배님께서 강의를 진행해주셨다.

강의에 앞서 합창부의 환일찬가 합창과 2,3학년 각 대표의 발표가 있었다. 합창부의 하모니는 선배님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했고 두 학년 대표의 발표에선 꼼꼼한 조사로 수준 높은 질문을 했다는 것이 느껴졌다.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전 선배님께서 1981년 처음 학교에 왔을 때 엄청난 언덕에 놀라셨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공감이 됐다.

본 강의는 법무부가 하는 일과 검사에 대한 오해를 푸는 내용을 영상자료와 퀴즈로 풀어가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법무부를 소개하는 영상에선 영화 캐릭터를 활용해 친근감이 느껴져 이해가 잘됐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마을 변호사' 제도인데 변호사 사무실이 없는 마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제도라고 한다. 법에 관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같아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다. 퀴즈 중에선 소년원과 교도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도 있었는데, 소년원은 보호처분기관이고 교도소는 처벌기관이라서 소년원에 다녀와도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한다.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소년원도 엄연히 잘못을 저질러 들어간 곳이므로 전과기록이 남아야 하는 것이 맞는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다.

법무부가 하는 일과 훌륭한 선배님들의 업적을 알게 되어 뜻 깊은 시간이었고 나도 대단한 인물이 되어 수십 년 뒤 학교를 방문하여 후배들에게 강의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는 강의였다.

3학년 최서혁 기자

〈김희석 교수 명사 특강〉

나도 점프를 해야겠다

지난 5월 15일에 우리 선배님이신 김희석 교수님께서 명사특강으로 환일에 오셨다. 교수님은 단순하게 직접 말하시는 것이 아닌 직접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주시고 우리가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중간 중간에 교수님의 대학학생 형, 누나들이 공연을 했다.

교수님의 발표주제는 'Jump' 였다. 점프는 자신의 벽을 뛰어 넘어 더욱더 발전해나간다는 의미이다. 그 주제와 함께 유명한 사람들을 예로 알려주셨는데, 마이클조던이나 김연아를 예를 들어주셨다. 그래서인지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들의 의미를 더욱 쉽게 이해하게 되었다.

강당에서의 특강이후에 교수님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곳에서는 교수님에 대해서나 음악에 대한 궁금증을 묻는 것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특강에서는 듣지 못했던 교수님의 음악에 대한 마음과 각오를 보고 저런 마음가짐을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정말 마음 깊숙이 박혔다. 나도 평소에 음악에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을 계기로 진지한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또한 학교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특히 자신의 모교를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교를 명문학교로 만든다는 말씀이 너무 감동 깊었다. 말을 맺으면서 올해도 본교를 찾아주신 김희석 교수님께 많은 감사를 드리며 이런 특강을 후배들도 계속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2학년 강범모 기자

〈오준호 교수 명사 특강〉

로봇기술과 미래

지난 5월 31일 로봇공학자 오준호 교수님의 명사특강을 듣게 되었다.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했으며, 휴보(HUBO)의 아버지이신 오준호 교수님이 강연을 하시는 모습이 존경스러웠다. 오준호 교수님께서는 로봇에 대해 내가 이전에 궁금했던 다양한 정보들을 잘 알려주셨다. 과거의 로봇이란 일정한 동작을 반복하는 기계에 불과했지만 요즘 사회에서는 드론, 휴보, 로봇 등 다양한 모습의 로봇으로 발전하였다고 말씀하셨다. 더 나아가 인간 생활에 불편한 점을 맡아주는 역할까지. 앞으로의 로봇의 발전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도 알려주셨고, 그러한 로봇에 대해 흥미가 갔다.

오준호 교수님과 카이스트 팀에서 출전한 DARPA robotics challenge에 대한 이야기도 신기한 경험이었다. 세계 재난로봇 경진대회에서 휴보가 최초로 미션을 성공한 교수님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도 한 번쯤은 그러한 경험을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앞으로의 로봇 발전이 우리 사회의 발전과 나란히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인공지능의 로봇이 인간을 지배할까?' 라는 재미있는 질문에 답을 해주셨는데 그 속에서 로봇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었다. 로봇은 물리적 상호활동인 움직임과 자율성을 전제하여 만들어진다고 하셨다. 우리 사회에 이러한 로봇의 움직임이나 자율성의 기능이 더해지는 것을 로봇화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로봇화된 기계들은 안전상 하나의 기능을 특화시키고 다른 쪽에 제약을 두어 결국은 인간의 도움을 필요하다는 구조라고 하셨다. 또한 로봇은 자아의 개념 없이 객관적으로 작동한다고 말씀에 주셨다. 즉, 앞으로 인간의 로봇에 대한 연구는 제약 없이 발전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다.

1학년 김재혁 기자

〈양종수 교수님 특강〉

국제관계로 보는 6.25

지난 6월 23일에 양종수 전 육군사관학교장, 현 상명대 교수님께서 우리 학교에 오셔서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이하여 '국제관계로 본 6.25전쟁' 이란 주제로 국가 안보에 대해서 특강을 하셨다.

6.25전쟁이 일어나게 된 여러 요인, 배경과 현재 혼란한 국제정세들을 자세히 설명해주셨다. 특히 서울에 북한의 핵이 떨어질 경우에 60만 명이 죽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는 교수님의 말씀은 그동안 국가안보에 무관심했던 것을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 외 여러 나라들과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군사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정치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해결할 문제라고 하셨다.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나라가 군사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커서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 우리나라의 국력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강이 끝나고 간담회에서 학생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을 해주셔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의 진로가 군인 외에도 다양하다는 것을 질문을 통해 알게 되었다. 특강을 듣고 국가의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우리학교 학생들도 양종수 장군님처럼 국가의 안보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어 학교를 빛냈으면 좋겠다.

2학년 정한결 기자

〈교육실습 소감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양진철

처음 학교에 와서 아이들을 만나기 전, 설레고 기대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고 걱정되기도 했다. 요즘 애들은 무섭다는데 내가 아이들에게서 상처 받지는 않을지, 남학교인데 내가 남자 교생이라고 아이들이 관심도 안 보여주는 건 아닌지 별별 걱정이 들었다. 게다가 학교 시간표를 보고 4교시 자치 시간에 첫 인사를 하게 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첫날 아침 조회에 바로 아이들에게 첫 인사를 하게 되었다. 좋은 첫 인상을 남기기 위해 전날 잠도 설쳐가며 부단히 연습했건만 급작스러운 인사에 말은 꼬이고 시선은 허공에 머물러 좀처럼 아이들에게로 내려가지 못했다. 인사말을 다 마치고 그래도 명색이 국어과 교생인데 인사도 제대로 못하다니 망했다 하는 순간, 아이들의 박수와 환호가 들렸다. 그때서야 모든 긴장이 풀리고 아이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었다. 아이들의 환영이 너무나 고마워서 아이들이 날 맞아준 만큼 나도 아이들에게 따뜻하고 다정하게 다가가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나의 다짐과는 달리 아이들 앞에만 서면 나도 모르게 몸과 말투가 경직되기 일쑤였다.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하나 하고 입이 얼어붙었고, 고맙게도 아이들이 먼저 인사를 걸어올 땐 인사조차 자연스럽게 받아주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손을 흔들곤 했다. 어쩌면 아이들을 너무 좋아했던 게 문제였는지도 모르겠다. 아이들이 내 인사를 귀찮아하면 어떡하나 싶은 생각에 마치 고백을 앞둔 수줍은 소녀가 된 마냥 어색한 인사만 남발하다가 문득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래, 우선은 아이들의 이름부터 불러주자. 근처에 있던 아이들에게 "네가 ○○이니?" 하며 말을 걸자 아이들이 신기해하는 눈치로 나를 돌아보았다. 김춘수의 '꽃'처럼 내가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자 정말로 아이들이 내게로 와 꽃이 되었다.

아이들의 이름과 얼굴을 거의 다 익힐 무렵, 아이들과의 상담을 시작하게 되었다. '상담'보다는 '담소'처럼 자연스럽게 편한 분위기에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자 노력하였다. 지도를 맡아주신 홍승강 선생님께서 상담에 쓸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상담 전에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어서 천만 다행이었다. 그 덕분인지 상담을 하면서 아이들에게서 의외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다. 겉보기에는 밝고 활발해 보여도 속으로는 남모를 고민과 아픔을 지니고 있는 아이들도 많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밖에 없다는 것에 무력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4주짜리 교생에게 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은 아이들에게 고마웠다. 내가 아이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줄 수는 없지만 내가 아이들의 문제에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아이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 상담을 통해 아이들이 그것만이라도 느끼게 되었다면 어쩌면 상담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된 것이리라.

3주차에 접어들어 본격적으로 수업 실습을 시작하였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주입식 수업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론을 도출하고 표현할 수 있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만들어보고 싶었다. 그러나 수업을 준비하면서 찾은 여러 자료들을 버리기 아까워 자꾸 수업 자료에 넣다보니 50분 안에 준비한 것을 모두 소화하면서 아이들과 소통하기가 쉽지 않았다. 처음엔 집중해서 수업에 참여하던 아이들도 진행이 빨라지자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다. 결국 시간이 모자라 마지막에는 급하게 진행하게 되었는데도 불평 없이 따라와 준 아이들에게 고마울 따름이다. 수업이 어땠는지 걱정되어 아이들에게도 직접 수업에 대한 평가를 물어봤는데 다들 재미있고 유익했다고 이야기해줘서 다행이었다. 홍승강 선생님께서도 시간이 많이 부족하긴 했지만 아이들과 소통하고 결론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칭찬해 주셔서 뿌듯했다.

아이들과 헤어질 때가 되니 못해준 것들이 자꾸 떠올라 미안한 마음이 든다. 더 많은 아이들에게 상냥하고 따뜻하게 말을 걸었어야 했는데, 여러 아이들에게 두루두루 신경을 써 주지 못한 것 같아 아쉽기만 하다. 특히 다른 반 친구들은 실습 한 번 이외에 마주할 일이 적어 친해지지 못해서 아쉽다. 그래도 예비 교사로서 실제 고등학교를 4주간 체험할 수 있었던 이 시간을 통해 많은 걸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다. 아이들 각자에게 오롯이 그들의 삶이 있다는 것, 그래서 아이들을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도 결국엔 교사가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힘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런 교훈이 앞으로 교직에 나아갔을 때 좋은 선생님이 되는 데에 훌륭한 자산이 되리라 믿는다. 선생이라 불리기에 아직은 어설프지만 늘 "쌤" 하면서 친근하게 나를 환대해준 1학년 3반 친구들과 다른 여러 친구들, 그리고 아이들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시며 '선생'이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홍승강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다. 환일고등학교, 고맙습니다.

〈제 3회 환일고등학교 교내 합창대회〉

1학년 이진호

고등학교에 와서 처음으로 한 큰 대회였다. 우리 반은 합창대회 연습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음악실에 갔다. 음악실에서 김성찬 음악선생님께서 준비해주신 곡 몇 곡을 우리 반 친구들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하고 싶은 곡을 추천 받으셨다. 그 후 어울리지 않는 곡을 지워나갔고 결국 '아름다운 나라'라는 곡으로 합창대회 곡을 정했다. 합창대회를 하기 전 김성찬 선생님께서 나를 불러 피아노를 좀 칠 수 있는 것 같은데 반을 위해서 수고해 주면 어떠겠냐고 물어 보셨다. 나는 피아노를 배운지 꽤 오래되서 자신도 없었고 하기 부담스러웠지만 노력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반주를 맡았다. 합창대회까지 우리 반은 힘들게 연습했다. 점심시간에 청운실에서 반주에 맞춰 연습하고 수업시간에 선생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연습하기도 할 정도로 많은 도움의 손길과 피나는 노력들이 있었다. 또한 태극기 퍼포먼스를 하기로 했는데 담임 선생님계서 많이 도와주셨다. 또한 자발적으로 북을 구해온 친구가 있을 만큼 모두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몇 번 더 실전처럼 연습했다. 합창대회 날이 오자 우리는 평소에 연습한대로 하자며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 올라가기 전 긴장되는 부분도 없지 않았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마지막으로 체크할 부분을 확인했다. 그렇게 무대에 올라가서 친구들과 합을 맞춰 피아노를 쳤다. 피아노를 칠 때 '지금까지 한 노력을 헛되이 하지 말자. 지금 실수하면 반 친구들에게 민폐가 된다. 우리가 어떻게 노력했는데...' 라는 일념으로 건반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눌렀다. 나와 반 친구들은 기대를 하지 않았고 어느덧 본선 발표가 나왔다. 그 때 우리 반이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다. 감격에 기쁜 우리는 더욱 열심히 해서 '동상 받을 거 은상 받고 은상 받을 거 금상 받자' 라고 외치며 다시 한 번 합을 맞췄다. 결국 두 번째 무대에 올라갔는데 너무 긴장되어서 그런지 조금 실수를 하였다. 무대에 내려와서는 친구들이 잘했고 수고했다며 결과를 기다렸다. 우리는 시상 때 까지 기대하면 실망이 크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고 기다렸다. 시상 때 나와 우리 반 지휘자가 지휘상과 반주상을 받았는데 반 친구들이 모두 축해해 주며 우리 반 전체의 상을 기다렸다. 은상에도 우리 반 이름이 불리지 않자 우리는 환호했고 금상에 우리 반 이름이 불리자 우리는 감격해서 환호성을 지르며 뛰어다녔고 담임 선생님과 음악선생님께로 달려가서 기쁨을 함께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시며 공부도 우리가 1등해 보자고 격려해주셨다. 합창대회를 통해 나와 우리 반 친구들에 가슴 속 깊이 협동심이 새겨졌다. "다음 합창대회에는 다른 반으로 만날 테지만 이 추억 잊지 말자 친구들아!!"

〈제 3회 환일고등학교 교내 합창대회〉

2학년 김인오

이번 합창대회는 정말 기억에 남을 일인 것 같다. 합창대회에서 우리 반이 대상을 타고 나도 지휘자상 금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 반에 반주자랑 지휘자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서 반주자는 8반의 원이를 섭외하고 지휘자는 반 친구들끼리 회의 끝에 나로 뽑히게 되었다. 내가 뽑힌 이유는 일단 우리 반에 합창단이 10명가량 있는데 노래를 불렀어야 했고 나는 합창단이 아니었으며 노래가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작년 봉학마루제 때 여장대회에 나갔었기에 무대경험이 있어서 떨지 않고 잘 할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성격이 내성적인 나는 솔직히 그 때 여장대회도 강제로 나가게 된 것이었는데 이번에도 지휘자를 강제로 맡게 된 셈이 된 것이다. 처음에는 겁이 났다. 우리 반이 다른 반에 비해서 노래를 잘하는 편이었는데 내가 과연 이 반을 지휘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성격상 자신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친구들이 믿고 뽑아주었다는 생각으로 의무감을 가지고 임하게 되었다.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집에서 혼자 연습도 많이 하고 악보도 수도 없이 봤고 지휘자 강의영상도 몇 번 보기도 했다. 그래도 음악시간마다 최윤경 선생님께서 나는 아직 우리 반의 역량의 10%도 못 이끌어낸다는 지적을 받게 되면서 합창대회 무대에 나가기 전까지 티는 안냈지만 정말 긴장하고 불안했었던 것 같다. 그래도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온 것 같아서 합창대회가 끝나고 상이 발표되었을 때는 정말 기뻐서 반 친구들과 운동장 한 바퀴를 돌았었다. 우리 반도 노래를 정말 잘 해주었고 내가 부족함에도 잘 따라준 것에 정말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도 다 불만없이 잘 받아들여주었던게 정말 고마웠던 것 같다.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반 친구들이 뒤에서 받쳐주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와서 정말 기분이 좋고 다음번 성가경연대회도 한 번 노려볼 것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학탐방 소감문〉

3학년 노현우

무더위가 한창일 무렵인 5월 24일 오후, 대학 탐방을 다녀왔다. 친구들마다 목표하는 진로와 대학, 학과가 달라 모두 함께 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살짝 있었고, 또 28도를 넘나드는 더운 날씨에 무거운 가방까지 들고 가느라 조금 힘겨웠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여 꿈을 펼쳐나갈 우리의 미래를 엿볼 수 있다는 설레임과 기쁨에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다.

중학교 3학년이었을 때부터 의사의 꿈을 키웠던 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탐방에 지원하였다. 서울대병원의 규모가 매우 커 처음 길을 찾아가는 데에 애를 먹었지만, 관계자 분들이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헤매지 않고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탐방은 병원과 캠퍼스가 주어진 시간 안에 돌아다니기에 너무 넓어 궁금한 점을 교수님께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평소 신경계와 뇌에 흥미가 많아 이와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고 싶었지만 자세히 알지는 못하여 어떤 학과가 있는지, 또 어떤 질병들을 치료하는지 질문하였다.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진로를 좀 더 구체화할 수 있었고, 탐방 중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시간이었다. 남자에게 민감한 문제인 군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는데, 보통 20대 후반에 군대를 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좀 더 알아보니, 군의관으로 입대하게 되면 중위 혹은 대위의 신분으로 군대 생활을 시작한다고 한다. 비록 시기는 늦지만 높은 계급에서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느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와 협업하여 인공신장 개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다. 관심 분야에 대한 연구도 병행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였고, 의사가 된 후에 뇌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

의사라는 길에 대해 더욱 많은 것을 알게 돼서 좋은 시간이었기도 하였지만, 나는 의사의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것에 좀 더 의미를 두고 싶다. 의사가 되는 것과 의대에서 공부하는 것,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의사가 된 후에도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해야 한다는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것들에 대해 심사숙고하게 되었다. 여태까지 의사에 대해 '많이 힘들겠지만 의미 있으니까 계속 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만 하였던 나 자신에 대해 깊이 반성하였으며, 더 큰 각오를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고1 교내 체육대회 소감문〉

1학년 서한민

2017년 5월 12일 구름이 많아 뜨거운 햇볕 없는 좋은 날씨에 고등학교 1학년들만의 체육대회는 성황리에 진행 되었다. 체육 대회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2배로 기뻤다. 참가하는 종목이 많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겼고, 고등학교 1학년만 즐기는 체육대회라서 좁아진 운동장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아서 복잡하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아쉬운 점은 빨리 다목적관이 만들어져서 드넓은 운동장에서 뛰놀고 싶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100m달리기를 시작으로 해서 반별 대항전으로 족구, 승부차기, 자유투를 하며 오전시간을 보냈고, 맛있는 점심밥을 먹고 난 뒤에는 각 종목별 결승전을 진행하고 족구 우승반과 축구 결승전을 본 후 반별 계주와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계주를 마지막으로 체육대회는 끝이 났다.

모든 학급이 입상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과 서로 응원하며 기쁨을 나눠 한층 더 가까워 진거 같고 중간고사를 보며 쌓였던 학업 스트레스가 한 순간에 사라진 즐거웠던 날이었다.

〈고3 교내 체육대회 소감문〉

3학년 김재영

지난 5월 13일 교내 체육대회가 열렸다.

이번 체육대회에는 지난 2년과는 달리 크게 바뀐 점은 1,2학년 없이 3학년끼리만 체육대회를 진행되었다. 다목적관 건설 때문에 운동장이 좁아졌지만, 스트레스를 날려 버리기에는 좋았다.

그리고 이번에 축구가 사라지고 족구가 새로운 종목으로 들어왔습니다. 먼저 우리는 다같이 국민체조를 한 후, 100M 달리기를 진행했습니다. 주자들은 최선을 다한 친구들도 있고 웃음을 주며 뛰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번엔 족구, 학급승부차기, 학급 자유투등 동시에 진행되면서 저번과 달리 스탠드에만 구경하지않고 운동장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학급친구들 경기를 바로 옆에서 구경하고 응원하며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도 더 힘을받아 뛸수있었습니다. 점심식사를 한 뒤 선생님들과 족구 우승반과의 족구시합, 800M 이어달리기 그리고 체육대회 마무리를 장식하는 교사 릴레이 계주등이 이어지며 체육대회를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체육대회가 3학년에게 마지막이라 더욱 의미깊었던거 같습니다.

비록 내년부터는 체육대회에 참여할수 없지만 이 환일고등학교에서 함께했던 체육대회의 추억만큼은 영원히 가슴속에 남을 것입니다.

〈소규모 테마여행 소감문〉

제주도에서 뭘 배웠노

2학년 채종민

수학여행은 모든 학생들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 되는 좋은 시간일 것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3학년 대학입시를 앞두고 좋은 추억을 남기는 뜻 깊은 시간입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사진 속에 담습니다. 즐거운 여행 앞에선 누구나 비슷한 생각을 품고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텐데 학생들에게 가장 잊을 수 없는 활동 1개만 떠올려 보라 한다면 바로 한라산 등반이 아닐까 싶은데, 가장 힘들었지만 볼거리가 많았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등반하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어느새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정상을 향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록담을 간 것은 아니지만(백록담을 가는 팀도 있지만) 한라산을 오르는 내내 서로 오가는 이야기는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고 여태까지 못했던 이야기를 오르내리면서 전부 다 털어놓고 얘기했습니다. 긴 시간동안 진행된 한라산 등반은 많은 학생들의 다리와 발을 아프게 했지만 학생들의 마음을 더없이 풍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상을 찍고 내려와 한라산을 바라보니 "내가 정말 저 산을 올라갔나" 하는 알 수 없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심어졌습니다. 많은 활동을 했지만 저는 학생들이 숙소에서 하는 활동은 아마 그들만이 알 수 있고 최고로 즐길 수 있고 지겹지 않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각 숙소마다 수영장이 있었을 텐데 아마 그것이 학생들을 또 다르게 재밌는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숙소에서 뭐했니?" 라고 물어보면 재밌고 듣고 싶은 이야기를 끊임없이 말해 듣는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제주도 일정 중에 승마 체험하고 카트 체험이 있었는데 승마는 아마 생소한 경험 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처음 해본지라 많이 긴장된 상태로 체험했는데 말이 달릴 때 떨어질 줄 알고 겁을 많이 먹었습니다. 무사히 끝냈지만 다시 하라면 겁이 나서 좀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카트 체험은 달리는 재미가 있었는데 학생들의 운전 실력과 질주본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끔 굉장히 잘 타는 학생이 있었는데 보면 볼수록 한두 번 탄 솜씨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행에 또 다른 재미는 좋은 풍경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정말 좋은 풍경을 많이 봤습니다. 돌담, 드넓은 바다 멀리서보는 한라산 성산 일출봉 정말 볼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날엔 단체로 제주도 기념품점에 가는데 학생들은 부모님이나 형, 동생, 다른 학교 친구들한테 사줄 선물을 샀습니다. 일정이 달라 만나지 못했던 친구도 만나고 무엇을 살지 고민하는 친구들의 쇼핑도 도와주면서 제주도에서 일정이 끝났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지내는 3일은 지겨울 정도로 느리게 흘러가는데 여행을 하면서 지내는 3일은 언제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지 이 글을 쓰고 있으면서도 "다시 제주도에 가면 더 많이 즐길 수 있을 텐데" 생각을 해 봅니다. 1일차 2일차 3일차 마지막 날 친구들하고 찍은 사진을 정리하고 가만히 앉아 추억으로 남을 많은 체험들을 다시 생각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재미있는 여행을 하게 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글을 마칩니다.

〈등행 소감문〉

자연을 만나다!

1학년 이태호

5월 12일 금요일 환일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산행을 하는 날이다. 고등학교 친구들과 친해지고 나서 처음 가는 소풍이라는 생각에 산행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받을 때부터 설레어 왔다. 그 안올 것 같던, 너무 기다려지던 날이 드디어 왔다. 나는 들뜬 마음을 안고 우리 반 친구들을 공덕역에서 만나서 지하철을 타고 불광역에 갔다. 지하철로 13정거장에 24분, 도심에서 산으로 가는 데까지 걸린 시간 치고는 정말 짧았다. 집에서 학원까지 걸리는 시간이랑 다를 것이 없었기에 밖이 보이지 않는 지하철에서는 이것이 산에 가는 길이라고는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 짧은 시간을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보내니 눈 깜짝할 새에 도착해 있었다. 작은 기대감을 가지고 출구로 나오니 정말 한적했고 사방에 산이 보였다. 바로 앞의 산을 보니 잠시 가라앉았던 들뜬 마음이 다시 설레기 시작했다. 친구들도 그랬는지 앞에 보이는 산이 우리가 올라갈 산이라며 사진을 찍고 누가 더 산에 잘 올라갈지 투닥 거리며 장미공원까지 갔다. 장미공원이 어딘지 찾기 쉽지는 않았지만 다른 친구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것을 보아 저곳이 장미공원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껏 신난 얼굴로 공원에 모여 있는 아이들을 보니 소풍은 아니지만 학교 교실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손잡고 산을 오른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친구들에게 설레는 일인 것 같았다. 친구들이 모두 오고 산행이 시작됐다. 일기예보에서는 비가 온다고 했었는데 다행히도 비는 오지 않고 하늘은 맑았다. 나는 웃었고 친구들도 웃었고 선생님께서도 웃었고 하늘도 웃으며 우리를 반겨주었다. 해가 뜨고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지 산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땀이 흐르고 다리는 아파왔다. 내 앞의 친구도 내 뒤의 친구도 땀을 뻘뻘 흘렸지만 누구도 힘들다고 내려가겠다고 하는 친구는 없었다. 힘들다고 하는 친구에게 노래를 틀어주고, 덥고 목마르다는 친구에게 물을 한 모금씩 주고, 땅에서 멀어지는 만큼 우리들의 우정은 깊어졌다. 푸른 나무와 듬직한 바위를 구경하며 올라가는 사이에 금방 전망대에 도착했다. 들뜬 마음에 전망대의 끝에서서 앞을 바라 보았을 때 나는 마치 하늘을 날고 있는 것 같았다. 모든 건물이 내 발아래에 있었고 바람은 올라오느라고 수고했다며 시원하게 불어왔다. 지금까지 매일 앉아서 공부만 하던 무거움을 바람에 흘려보냈고, 복잡하게 살아서 답답한 마음을 '야호' 라는 소리와 함께 날려보냈다. 우리가 허공에 소리를 치자 모래와 바위와 나무와 산이 '야호' 라고 똑같이 대답해주었다. 산의 응원소리를 들으니 더욱 힘이나서 잘 올라갈 수 있었다. 전망대를 지나서 계속 오르고 내리다 보니 산중턱의 쉼터가 나왔다. 친구들끼리 모여앉아서 음료수도 나누어 마시고 점심도 먹으니 올라오면서 흘린 땀방울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다. 어머니가 싸주신 김밥은 역시 힘들때 먹어야 제맛이다. 집에서는 이런 맛을 느낄수 없다. 산에 땀을 흘리고 올라와 멋진 풍경들을 보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메아리소리를 듣고 힘든 다리를 토닥이며 먹는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밥이다. 그렇게 산행이 끝나고 평지에 왔다. 이제는 건물들을 밑에서 올려다봐야한다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힘든 여정이 끝나서 기쁘기도 했고 멋진 경험을 하고 돌아와서 자랑스러웠다. 학교에서 이런 좋은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이런 쉽지 않은 경험을 언제 다시 해볼지 모르겠다.

〈등행 소감문〉

싱그러운 풀과 흙 내음

2학년 정인성

나는 평소에 움직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였을까, 처음 등행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조금 회의적인 감정이었다. 그저 조금 일찍 끝나는 날 정도로만 받아들여졌을 뿐이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별로 기대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게 등행이란 그저 산에 오르는 행위 외에는 아무 것도 와 닿지 않았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산 앞에 모였을 때에도 빨리 끝나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등행을 해 보고 난 후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우물 안 개구리가 바깥 세상을 처음 볼 때가 이런 느낌이었을까? 처음 걸을 때는 조금 힘들었지만, 그것도 잠시 뿐 곧 싱그러운 풀과 흙 내음이 나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잊고 있었던 모험심과 개척심이 되살아나는 듯 했다. 가슴은 뭉클했고, 다리는 가벼워졌다. 짜증은 한 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느낌이었다. 도심에서는 보지 못했던 에메랄드 나뭇잎들이 내 마음을 들뜨게 했다. 그때부터의 나는 내가 아니었다. 벌레도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며, 일부러 조금 험한 곁길로 뛰어가기도 했다. 이건 마치 뒷산에서 친구들과 뛰어놀던 어릴 적 나로 돌아간 것만 같았다. 중간에 친구와 함께 나무 그늘 아래에서 땀을 식히는 맛도 일품이었다. 불어오는 바람조차 나를 웃게 해 주려고 간질이는 것만 같았다. 책에서 보던 자연은 내겐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몸소 경험해보니 친근감이 일었다. 모두 나의 친구라고 생각하니 괜스레 미소가 지어졌다. 특별하게도, 중간에 '삼성산성지' 라고 불리는 가톨릭 성지에 들렀다. 찾아보니 예전 천주교 박해 때 순교하신 세 성인께서 묻혀계신 곳이라고 한다. 천주교도 기독교와 같은 뿌리여서 그런지 별로 거부감은 들지 않았다. 주변에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 이때만큼은 마음을 엄숙히 정돈하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아 성지를 지났다. 하산까지 무사히 마치고 고대하던 마무리 시간이 되었는데, 어쩐지 아쉬운 이 기분은 무엇일까? 초록빛 산을 뒤에 두고 다시 콘크리트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 조금 싫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 싫어도 다시 가야만 한다. 그 곳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이곳에서 배웠듯, 이곳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을 배우러 갈 시간이다. 모두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한다. 산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계속 올라왔다면 내려갈 때도 있는 것이고, 길을 헤맬 때도 있으며 커다란 돌이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도 있는 것이라고. 그러나 결국 아쉬움을 남기며 산을 떠날 때가 오는 것이라고... 이번 등행에서 이 말이 백번 맞는 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벌써 나는 인생을 경험한 것이 아닐까, 이래서 사람들이 등산을 하는 것일까? 이까지 생각이 미치자 문득 웃음이 새어나오고 말았다. 또한 동시에, 앞으로도 이번 등행을 잊지 말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파른 산을 기어올라 산을 정복하듯, 이 악물고 악착같이 노력해 꿈을 이루겠다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겠다.

교내수상

교내 환경미화 수상

▲ 금상 : 1-4 2-11 3-8 ▲ 은상 : 1-1 2-1 3-1 ▲ 동상 : 1-9 2-5 3-9

모범상

(1학년)

1-1 김상연	1-3 김민준	1-5 김현우	1-7 박규홍	1-9 길윤수
1-1 김유하	1-3 김희건	1-5 박정훈	1-7 박승빈	1-9 김민재
1-1 이경연	1-3 서한민	1-5 윤호경	1-7 박준석	1-9 김성윤
1-1 이정우	1-3 이재정	1-5 이창재	1-7 이원민	1-9 이태경
1-1 이주형	1-3 전형석	1-5 정우진	1-7 최다인	1-9 조성우
1-1 황두겸	1-3 황호연	1-5 허지석	1-7 최상현	1-9 이상원
1-2 권혁준	1-4 강한수	1-6 김우진	1-8 김동건	1-10 김재경
1-2 김지원	1-4 김재혁	1-6 김태경	1-8 김준호	1-10 김충훈
1-2 김태수	1-4 신여호수아	1-6 박주호	1-8 신지환	1-10 유주명
1-2 노종범	1-4 정동욱	1-6 신재헌	1-8 이진호	1-10 이동준
1-2 박서로	1-4 최형준	1-6 안준영	1-8 이찬용	1-10 이지수
1-2 장은성	1-4 이재혁	1-6 윤찬영	1-8 정준영	1-10 최낙준

(2학년)

2-1 고영준	2-3 김동해	2-5 이상원	2-7 이찬희	2-9 조성민
2-1 변정규	2-3 장진호	2-5 이연우	2-7 전주현	2-9 지정환
2-1 신준혁	2-3 장혁진	2-5 전용석	2-7 황상민	2-10 김덕률
2-1 유찬영	2-3 정상원	2-5 정찬빈	2-8 국건	2-10 김돈규
2-1 정한결	2-3 황인규	2-6 오세찬	2-8 김범준	2-10 나유민
2-1 조윤제	2-4 김세민	2-6 유대혁	2-8 배진호	2-10 문민혁
2-2 권민찬	2-4 김현중	2-6 전경재	2-8 정현우	2-10 백상준
2-2 이승준	2-4 손찬우	2-6 정성현	2-8 조성빈	2-10 이세웅
2-2 박종현	2-4 이동후	2-6 조현식	2-8 최선지	2-11 김찬우
2-2 방성한	2-4 이지훈	2-6 천석범	2-9 김은학	2-11 박재현
2-2 이우석	2-4 이현로	2-7 박상범	2-9 김태우	2-11 송민주
2-2 채유빈	2-5 고창준	2-7 박정현	2-9 박건	2-11 오동진
2-3 고필철	2-5 이건호	2-7 이재훈	2-9 이민우	

(3학년)

3-1 김민서	3-3 이건우	3-5 정희윤	3-8 김기성	3-10 이준호
3-1 김부림	3-3 조성민	3-5 최봉석	3-8 노현우	3-10 이형주
3-1 김승태	3-3 조성헌	3-6 강태욱	3-8 문준호	3-10 정기원
3-1 김채운	3-3 최서혁	3-6 김진현	3-8 박지민	3-10 최용선
3-1 김현종	3-3 옥준우	3-6 김태엽	3-8 이상우	3-10 강동균
3-1 이성민	3-3 이찬솔	3-6 박효진	3-8 한상진	3-10 김윤수
3-1 이효준	3-4 김영균	3-6 최민승	3-9 김재형	3-11 박건희
3-2 김정환	3-4 류주홍	3-6 현지웅	3-9 박기원	3-11 오세훈
3-2 노정래	3-4 문진현	3-6 박성진	3-9 박주성	3-11 이다빛
3-2 박지훈	3-4 이준호	3-7 김규엽	3-9 심재혁	3-11 이창규
3-2 서기현	3-4 이형철	3-7 김진명	3-9 최승환	3-11 이호승
3-2 정효상	3-4 최호준	3-7 박인철	3-9 표리원	3-11 전우영
3-2 최원준	3-5 곽선우	3-7 안선우	3-9 조관영	3-11 설성학
3-2 조재영	3-5 손종휘	3-7 이세정	3-9 김민우	
3-3 고상민	3-5 송민우	3-7 임형욱	3-10 박진용	
3-3 김경민	3-5 고정현	3-7 추준식	3-10 이재준	

2017 성경퀴즈대회 수상

▲1학년 : 1등 – 1반 (구정희 교사)
2등 – 6반 (최선영 교사)
3등 – 7반 (김동현 교사)

▲2학년 : 1등 – 3반(양헌준 교사)
2등 – 10반(이링구 교사)
3등 – 5반 (김현옥 교사)

▲개인전 : 1등 –이찬용(1-8), 이찬희(2-7)
2등 –박화평(1-2), 장민준(2-3)
3등 –박준석(1-7), 최선지(2-8)

▲응원상 : 1-8반 (정지호 교사), 2-10반(이링구 교사)

교내 합창대회

▲대상 : 2-6 (Medley from Les Miserables, 김경신 선생님)

▲금상 : 2-4 (정주나요&어머님이 누구니, 권규인 선생님)
1-8(아름다운 나라, 정지호 선생님)

▲은상 : 2-10(오월의 어느 멋진 날에&New face, 이링구 선생님)
1-1(걱정말아요 그대, 구정희 선생님)

▲동상 : 2-5(지금 이순간, 김현옥 선생님)
2-7(새들처럼, 양성임 선생님)
1-5(You raise me up, 최진성 선생님)
1-6(Uptown funk, 최선영 선생님)

–퍼포먼스상
2-1(정말로 사랑한다면&축배, 전수진 선생님)
1-2(좋은날, 이은형 선생님)

–지휘상
2-7 김인오(대상), 2-4 권현우(금상)
1-10 이동윤(대상), 1-8 한태준(금상)

–반주상
2-8 김 원(대상), 2-10 박유한(금상)
1-8 이진호(대상), 1-2 이준성(금상)

교외수상자

서울학생상 교육감표창 3명 (학생회장 포함)	30722	임형욱
	30806	노현우
	30132	정재홍
서울교총상 1명	30418	문진현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상 3명	30911	박주성
	31116	오세훈
	31109	박건희
서울사립중고등학장회 회장상 3명	31015	박진용
	30105	김민서
	30909	박기원
서울 마포구청장상 1명	30701	김규엽
서울 용산구청장 1명	30807	문준호
서울 중구청장상 1명	31005	김윤수
서울사립인문고등학교장회장상 4명	30602	강태욱
	30224	임채웅
	30204	김정환
	30428	이형철

2학기 주요행사

8월
- 8/14 2학기 개학식
- 8/24 수업공개주간
- 8/25 학교운영위원회
- 8/30~9/1 고1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9월
- 9/1 고2 체육대회
- 9/6 고1,2,3 모의 평가
- 9/11-9/15 고3 대학입시 수시원서접수
- 9/22 학교운영위원회
- 9/25 개교기념예배
- 9/25 열린음악회
- 9/26 개교기념일
- 9/27~10/10 중간고사

10월
- 10/2 재량학습일
- 10/4 추석
- 10/9 한글날
- 10/20 봉학마루제
- 10/21창의력산출물대회
- 10/25 학생탐구논문

11월
- 11/1 중3 학부모설명회
- 11/15 수능결의예배
- 11/16 대학수학능력시험
- 11/20~28 고3 기말고사
- 11/27 추수감사예배
- 11/28 학교운영위원회

12월
- 12/4~6고3졸업여행
- 12/6 수능점수발표
- 12/7~12 고1,2기말고사
- 12/21성가경연대회
- 12/22 성탄절예배
- 12/27 방학식

1월
- 2/6 졸업식
- 2/7 종업식
- 2/5~7 신입생 접수
- 2/16 설날
- 2/23.28 전교사소집

2월
- 12/4~6고3졸업여행
- 12/6 수능점수발표
- 12/7~12 고1,2기말고사
- 12/21성가경연대회
- 12/22 성탄절예배
- 12/27 방학식